허미정

올해 LPGA 투어 '역대 최대 규모'

전인지

시즌 34개 대회 총상금 844억
22일 왕중왕전으로 시즌 개막
허미정·전인지·박희영 출전
소렌스탐은 유명인 부문 나서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시대 속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역대 최대 규모의 2021시즌을 시작한다.

2021시즌 LPGA 투어는 22일부터 나흘간 미국 플로리다주 레이크 부에나 비스타의 포시즌 골프 앤드 스포츠 클럽 올랜도(파71)에서 펼쳐지는 다이아몬드 리조트 챔피언스 토너먼트로 막을 올린다.

이 대회의 120만 달러를 포함해 이번 시즌은 34개 대회에 총상금 7645만 달러(약 844억4000만 원)가 걸려 있어 2019년 7055만 달러를 능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진다.

애초 2020시즌이 총 7510만 달러 규모로 계획돼 있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33개 대회 중 18개만 열리면서 쪼그라들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지난해 7승을 합작해 6승의 미국을 제치고 가장 많은 승수를 쌓았던 한국 선수들은 올해도 '최다승 국가' 수성을 노린다.

2018~2020년 LPGA 투어 대회 우승자만 나설 수 있는 이번 개막전엔 총 25명의 출전자 중 3명이 한국 선수다.

2019년 2승을 올렸던 허미정(32)이 LPGA 투어 통산 5번째 우승에 도전하고, 2018년 10월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오른 전인지(27)도 출전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2월 호주에서 열린 ISPS 한다 빅 오픈 챔피언 박희영(34)도 나선다.

현재 세계랭킹 1~3위인 고진영(26), 김세영(28), 박인비(33)는 불참하는 가운데 세계 '톱10' 선수로는 4위 넬리 코르다(미국), 5위 대니엘 강(미국), 6위 브룩 헨더슨(캐나다)이 출전한다.

지난해 대회에서 '1박 2일'에 걸친 7차 연장전 끝에 우승을 차지한 가비 로페스(멕시코)는 타이틀 방어전을 치른다.

이 대회는 스포츠 스타를 비롯한 유명 인사들이 LPGA 투어 선수들과 조를 이뤄 경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물론 초청된 유명인들은 LPGA 투어 선수들과는 별도로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으로 순위를 매긴다.

특히 올해는 LPGA 투어 통산 72승에 빛나는 여자 골프의 '전설' 안니카 소렌스탐(51·스웨덴)이 유명인 부문에 나설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프로 선수들과 경쟁하는 건 아니지만, 소렌스탐이 LPGA 투어 공식 대회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2008년 은퇴 이후 처음이다.

앞서 두 대회에서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명투수 출신 존 스몰츠(54·미국)가 유명인 부문에서 우승한 바 있는데, 스몰츠는 올해도 어김없이 출전해 3연패를 노린다. /연합뉴스

PGA 투어 20대 초반 돌풍 분다

임성재 등 23세 이하 5인방, 세계랭킹 25위 이내 포진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20대 초반 선수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1월 셋째 주 세계랭킹에서 23세 이하 선수가 5명이나 25위 안에 포진했다.

세계랭킹 산정 이래 만 24세가 되지 않은 선수가 이렇게 많이 상위 25위 이내에 이름을 올린 것은 처음이라고 골프위크가 19일(한국시간) 보도했다.

20대 초반 '5인방'은 세계랭킹 4위 콜린 모리카와(미국)와 14위 빅토르 호블란(노르웨이), 15위 매슈 울프(미국), 18위 임성재(한국), 그리고 25위에 진입한 호아킨 니만(칠레) 등이다.

모리카와와 호블란은 1997년생, 울프는 1999년생, 임성재와 니만은 1998년생이다.

20대 초반 선수 약진의 선봉장은 모리카와다.

모리카와는 작년 PGA챔피언십 정상에 올라 메이저 챔피언이 됐다. PGA투어 통산 우승도 벌써 3승이다.

2019년 프로 전향 때 세계랭킹 340위였던 호블란은 지난해 2승을 올리며 신예 스타로 발돋움했다.

울프 역시 눈부시게 성장했다.

2019년 프로 데뷔전에서 공동 80위, 두 번째 대회에서 컷 탈락했던 울프는 세 번째 대회 3M오픈에서 우승하고선 2승 고지는 아직 밟지 못했지만 작년 US오픈 준우승 등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올리고 있다.

23세의 임성재는 2부투어 신인왕에 이어 PGA 투어 신인왕을 거쳐 작년 혼다 클래식 우승과 마스터스 준우승으로 한껏 주가를 올렸다.

신인 때 무려 35경기에 출전해 26차례 컷을 통과해 '철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임성재는 올해도 두 번 출전해 한차례 5위에 올라 꾸준한 활약이 기대된다.

임성재와 함께 2019년 프레지던츠컵에 출전했던 니만은 아직 우승 물꼬를 트지는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투어 챔피언십 출전과 세계랭킹 50위 이내 진입이라는 성과를 올렸던 니만은 올해 치른 두 차례 대회에서 모두 준우승을 차지하며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조짐이다. /연합뉴스

NFL 브래디 '인생 라이벌' 브리스와 '아름다운 작별'

브래디 '쿼터백 전설' 대결서 승리
브리스는 은퇴 수순…경기 후 포옹

미국프로풋볼(NFL)을 대표하는 쿼터백인 톰 브래디(44·탬파베이 버커니어스)는 경기 후 또 하나의 터치다운 패스를 던졌다.

그의 공을 받은 건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상대 쿼터백인 드루 브리스(42)의 아들이었다.

지난 18일(한국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메르세데스-벤츠 슈퍼돔에서 벌어진 내셔널풋볼콘퍼런스(NFC) 디비저널 라운드.

이날 경기는 NFL 역사에 길이 남을 두 전설의 격돌로 큰 관심을 모았다.

역대 터치다운 패스, 패싱야드에서 선두를 다투는 브래디와 브리스가 NFL 플레이오프 역사상 처음으로 40대 쿼터백 맞대결을 펼쳤다.

정규시즌에선 브리스가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했지만 플레이오프에선 달랐다.

브리스가 3차례나 인터셉션을 당하며 자존심을 구긴 사이 브래디는 2개의 터치다운 패스 2개와 1번의 러싱 터치다운으로 30-20 승리를 이끌었다.

브래디는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에서만 20년간 뛰면서 슈퍼볼 6회 우승의 위업을 달성했다.

올 시즌 탬파베이로 옮기기 전까지 브리스와는 반대편인 아메리칸풋볼콘퍼런스(AFC)에서만 뛰었다.

경기가 끝난 후 서로를 격려하고 있는 브래디(오른쪽)와 브리스. /연합뉴스

포스트시즌에서 처음으로 성사된 둘의 맞대결에서 패한 브리스는 경기 후 "많은 것을 생각할 기회를 스스로 주겠다"며 말을 아꼈지만, 이미 은퇴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브리스는 경기 후 텅 빈 필드로 돌아와 아내, 네 자녀와 단란한 시간을 보냈다.

이때 브리스에게 한 사내가 다가왔다. 브래디였다. 브래디는 브리스의 아이들과 주먹을 맞부딪친 뒤 브리스와 뜨겁게 포옹했다.

브래디는 브리스의 아들에게 5야드 터치다운 패스를 던진 뒤 "오늘 밤에 네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농담했다.

브래디는 최고의 라이벌이었던 브리스에게 그렇게 진심에서 나온 작별 인사를 전했다.

브래디가 이끄는 탬파베이는 25일 NFC 챔피언십에서 에런 로저스가 버티는 그린베이 패커스와 대결한다.

브리스를 넘은 브래디가 또 한 명의 살아있는 전설을 적으로 만난다. 둘 중 승자가 2월 8일 대망의 슈퍼볼에 오른다. /연합뉴스

광주시육상연맹회장에 박찬모

"육상 메카로 업그레이드할 것"

통합 제2대 광주시육상연맹 회장에 박찬모〈사진〉㈜우영기술단건축사사무소 회장이 당선됐다.

광주시육상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육상연맹 사무실에서 제2대 광주시육상연맹 회장에 단독 입후보한 박찬모 후보에 대한 적격심사를 벌여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했다. 박 당선인은 시체육회 인준을 받아 4년 동안 연맹 회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박 당선인은 ▲남녀 초중고 대학 실업팀 연계 육성 시스템 구축 ▲ 꿈나무 선수 발굴·육성으로 육상인 저변확대 ▲생활체육 달리기 동호인 활성화 ▲국제 및 전국 육상경기 대회 유치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후원회 구성 ▲공인 육상경기장 구축 등을 공약했다.

박 당선인은 "광주육상을 남녀 초·중·고·대학·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최강 실업팀인 광주시청 육상팀도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광주를 육상의 메카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우영기술단건축사 광주사무소와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자문위원과 재해 영향평가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테니스협회장에 김성남

"침체된 학교 팀 육성 힘쓸 것"

김성남〈사진〉광주체육고 교장이 광주시테니스협회장에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지난 17일 광주테니스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통합 2대 광주시테니스협회회장 선거에서 당선했다.

김 회장의 임기는 2025년 정기총회 전날까지 4년이다.

김 당선인은 ▲침체된 학교 팀 육성 사업 최우선 과제 추진 ▲기존 팀 활성화를 위한 출전비·각종 장비비 등 예산지원 확대 및 우수지도자 확보 ▲전용코트가 없는 팀의 코트확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광주협회 전용코트 마련 및 구립코트 확보 등 시설 개선 ▲각종 동호인대회 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당선인은 "광주테니스를 이끌 기회를 주신 테니스인들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며 "테니스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해 광주 테니스가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당선인은 광주시교육청 체육담당 장학관을 거쳐 광주체육고 교장으로 재임중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국무도연맹회장에 박선배

"동호인 권익 향상 위해 최선"

광주시체육회는 19일 "통합 제2대 광주시 국무도연맹 회장에 박선배〈사진〉씨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광주시체육회 인준을 받아 4년동안 회장직을 맡는다.

그는 2016년 체육단체 통합 당시 초대 국무도연맹 회장을 지냈다. 박 당선인은 북광주청년회의소,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 보좌역, 광주금남로타리클럽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생활체육동호인 권익 향상을 위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소통과 화합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즐거운 문화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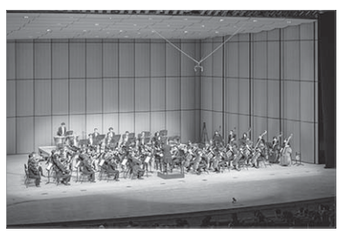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소울
2관	소울
3관	소울, 커넥트, 런
4관	소울, 아이 엠 우먼
5관	소울, 늑대와 춤을, 커넥트
6관	소울
9관	원더 우먼 1984, 이웃사촌
7관 씨네커플	#아이엠히어, 조제
8관 씨네커플	도굴, 이웃사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광주시립발레단 수시공연
발레 살롱콘서트 #1
일시 : 2021. 02. 06.(토) 14: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2-8716



광주시립교향악단 GSO 오티움 콘서트 I
비엔나의 봄
일시 : 2021. 02. 24.(수) 11:00,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4-5086